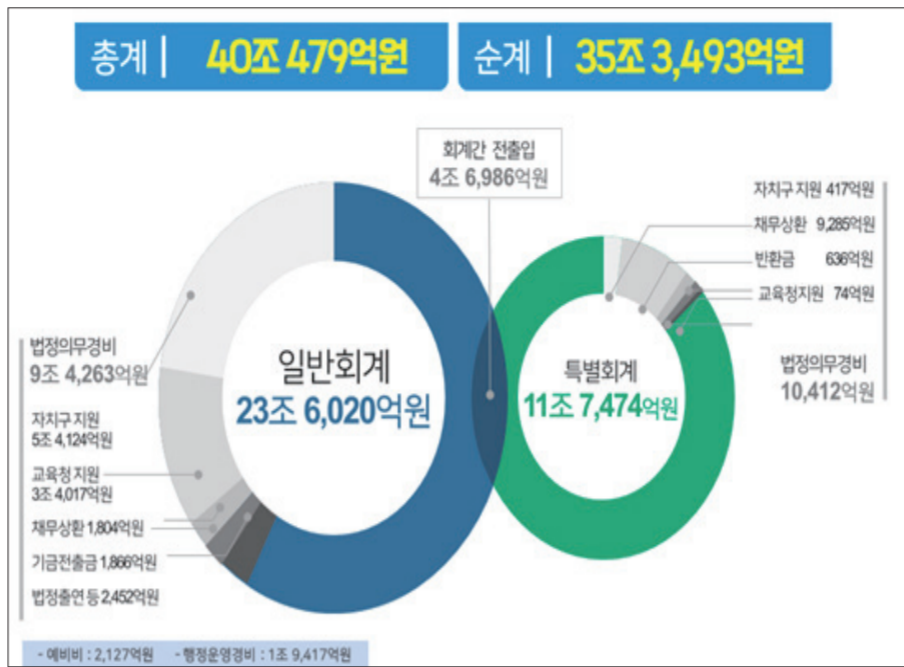


서울시내년 예산안 첫 40조 돌파... 코로나 위기 넘어 포스트코로나로

S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 3대 분야 7대 과제 중점투자

서울시는 2021년 예산을 40조 479억원으로 편성... 11월 30일 서울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월 2일 발표했다.

중에도 92억원을 편성했다. 하루 천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 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447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DDP에 조성하는데 18억 원을 편성했다.

한 번의 외출 없이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금융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26억 원을 편성한다.

응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155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21년 시민 편의를 높여줄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도 차질 없이 완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우선 배정했다.'

전북도, 2020년 광역공모 도시재생사업 국비 217억원 확보

도시재생 뉴딜공모 최초 군지역 3곳 선정

전라북도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광역공모 3곳이 최종 선정되며 국비 2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거점 우회, 순창군 '젊음이 함께하는 슬로우라이프 프로젝트', 고창군 '음식으로 소리로 함께 치유되는 옛도심'이다.

관광 중심보다는 '거주민 삶의 질제고'에 초점

부산시, 국토부 '2020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곳 선정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제24차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산지역 3곳이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해운대구 반여2·3동 '반여에 심포와 느낌표를 더하다' 사업에 총 46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문화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지역 활력을 회복한다.



리사업 당시 부산의용총이 터를 잡아, 재봉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바느질 체험 프로그램과 공유매장을 운영하는 '숙등 뒤편지 도전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영도구 '대통령수방 프로젝트'와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북구 '구포이음' 등 3건이 국토부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등 '경기도형 뉴딜정책',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서 대 국민 홍보 나서

경기도가 기본소득,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뉴딜정책에 대한 대 국민 홍보에 나선다.

브리지, 아이티분야 여성 취·창업 지원,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직·채용상담도 이뤄진다.



남궁영기기자

박상찬기자

의성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실시

2020년 하반기 상습·고질체납 징수를 위한

의성군이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상습·고질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방문 징수독려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체납 징수활동을 수행했다.

군은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한 바 있으나, 하반기에는 상습·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활동을 펼치게 됐다.

이를 통해 해당 활동 기간 중 8회에 걸쳐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실시간 체납차량 영상 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방문 납부를 독려해 번호



판 영치 62대, 체납액 7천2백만원을 징수했다.또한, 체납세 징수활동이 취약한 이른 시간대에 징수단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자 부재 등으로 인한 체납처분 불능을 상당부분 해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자진납부 분위기도 조성했

다.김주수 의성군수는“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다양한 세입징수활동에 불응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목포시, 가을철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결실억제약제 살포, 열매 조기채취 등 약취 예방에 총력

목포시가 가을철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채취해 약취 발생을 막고 깨끗한 도심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약취 민원을 줄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부터 열매를 채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은행나무는 대기오염정화 수준으로 병충해에 강하며 가을철 단풍은 도시미관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열매가 익어 떨어지기 시작하면 특유의 약취로 인해 애물단지 가 된다.시 전역에는 은행나무 가로수 4,000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열매가 생산되는 암그루는 826그루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식재 지역은 백년대로 삼일로 양일로 등이며 상가나 업소에서



열매 낙과로 인한 약취 민원이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은행나무 열매가 맺지 않도록 결실 억제 약제를 3회 정도 살포한 결과 전년 대비 은행나무 열매가 40% 감소한 성과를 보여 내년에도 사전 예방 약제를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가을이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약취 발생, 도시미관 저해로 많은 주민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채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일기자

김해시, 악성 불법 광고물 원천봉쇄



음성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조기 도입

김해시는 길거리 악성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음성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광고물 단속부서 담당자가 현수막, 전단지, 대부명함 같은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경고 발신시스템에 입력하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전화를 설정한 일정 간격으로 연속해 걸어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화폭탄’으로도 불린다.

시는 이 시스템을 당초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불법 광고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앞장져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도로변 악성 불법 현수막, 전단지 게시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예정보다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남원시 불법 주정차 고정식CCTV 단속 확대 실시

남원시가 교차로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고정식CCTV 단속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고정식CCTV 단속 확대 구간은 교통대로개통에 따른 향교동 신흥사거리와 도동동 로컬푸드 사거리 2개소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 확대 구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1월에는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극대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단속 실시 첫 달인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적발 시 주위에 해당하는 계도조치를 통해 단속에

대한 시민계도와 홍보를 강화, 2020년 1월 1일부터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 고정식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09:00~19:00까지이며, 단속은1차, 2차 촬영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점심시간(12:00~14:00)에는유예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의식변화가 반드시필요하므로, 관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광주시, 수능 및 빼빼로데이 대비 식품 특별점검 실시



광주시는 오는 5일까지 초콜릿, 엿, 찹쌀떡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빼빼로데이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실시한다.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원료사용·판매 여부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위생적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시중에 판매중인 초콜릿, 엿, 찹쌀떡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의뢰도 병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동현 시장은 “빼빼로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비가 많은 식품 생산업체의 집중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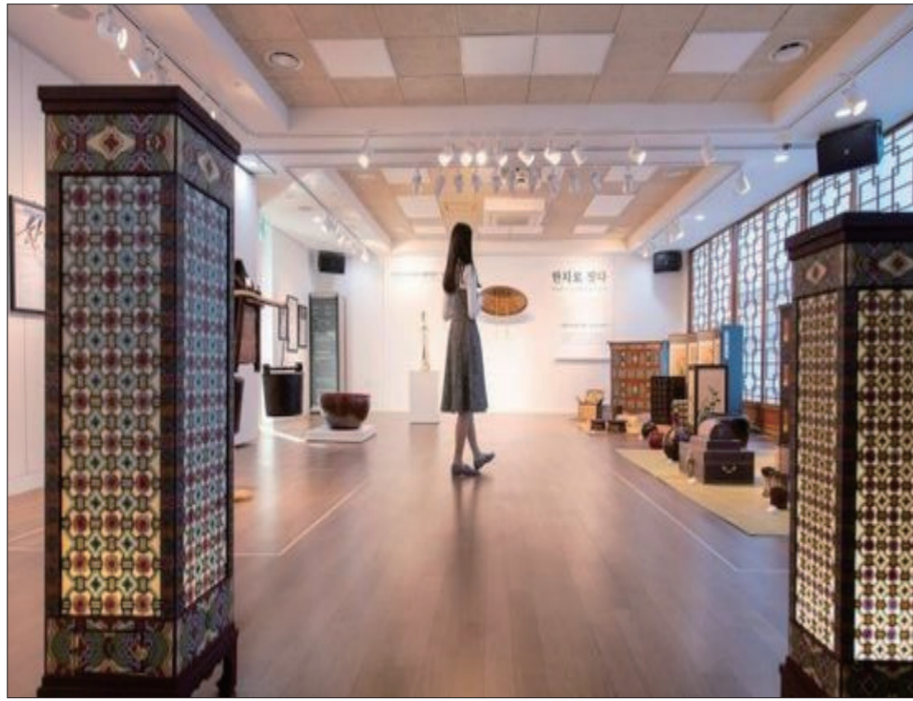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맘시티 2차

용산공예관에서 강원도 한지공예 감상해요

용산구, 팔도공예전 강원도편 '한지로 짓다'

서울 용산구가 지난 10월 30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팔도공예전 강원도편 '한지로 짓다' 전시를 선보인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으로부터 '대한민국 한지대전' 수상작 및 자체 보유작 22점을 초대, 용산공예관 4층 다목적실에 전시한 것. 신경재 작 '지승배개', 박용순 작 '책장세트', 조정민 작 '자수함', 최명순 작 '책거리고비' 등이 눈길을 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승등잔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재떨이' 등 이색적인 작품도 있다. 공예관 관계자는 "강원도 원주는 특산품인 다펀을 활용, 질 좋은 한지를 생산해 온 한지의 본고장"이라며 "원주한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예품이다. 용산공예관에서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공예는 크게 색지공예, 지호공예, 지승공예로 나뉜다. 색지공예는 한지를 여러 겹 덧발라 만든 틀에 다양한 색지로 옷을 입힌 다음 여러 가지 문양을 오려 붙여 만드는 방식이다. 지호공예는 버려진 한지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뒤 풀과 섞어 일정한 틀에 부어 넣거나 거나 옷칠을 하면 방염, 방수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승공예는 한지를 꼬고 말아서 실로 만든 다음 엮어서 모양을 만드는 방식이다. 무늬를 엮는 방



법에 따라 모양, 형태가 달라진다. 다채로운 표현을 위해 색지를 섞기도 한다. 30일 공예관을 찾은 권나혜씨는 "전통 한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몰랐다"며 "가구에서부터 베개, 재떨이까지 못 만드는 게 없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재밌다"고 감상 소감을 전했다. 용산공예관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했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지난 2018년 오픈했으며 1층 공예품 판매장, 2층 도자기·한복 체험장, 3층 공예배움터와 공방, 4층 전시실과 야외공연장을 갖췄다. 공예관은 질 좋은 공예품 판매,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 운영, 수준 높은 기획전 등으로 방문객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팔도공예 릴레이전으로 지역 공예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단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회도 동시 입장객 수를 5명 이내로 제한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7월 광양공시장 VR 전시에 이어 3개월 만에 새로운 전시를 선보인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통 한지공예의 세계를 느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사회적기업 플리마켓 '소영씨마켓', 온·오프로 만나

성동구, 사회적기업 문화마켓 '소영씨마켓' 11월 2일부터 20일간 운영

서울 성동구는 사회적경제와 청년 소상공인의 협치 한마당 '소영씨마켓'을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동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첫 행사를 시작한 '소영씨마켓'은 지역주민과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청년·여성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며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구매하는 성동구의 대표적 문화마켓이다. 핸드메이드 마켓, 체험부스, 푸드트럭과 문화공연까지 온 가족이 즐거운 살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또다른 축제의 장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 행사가 어우러진 '세미택트' 형식의 플리마켓으로 진행된다. 대면행사는 성수동의 사회적기업 편집샵인 '소영씨스토어'에서 60여개 사회적경제기업과 굿네이버스, 아름다운가게, 공정무역의 제품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DIY 마스크스트랩 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소영씨마켓 온라인몰'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마련하고 '소영씨스토어' 앞마당에 마켓에 참여하는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는 조형물과 광고판 등을 설치한 '무인전시관'을 운영해 브랜드스토리와 제품 체험 후 매장 구매를 유도한다. 이외에



도 다양한 사은품 증정, 무료배송, 할인 등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소영씨마켓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플리마켓이 아닌 사회적경제조직과 주민이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상생의 장"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청소년의 아이디어 뽐뽐, 청소년이 행복한 서구 만들기

서구청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 서구에서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가는 아주 특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서구 청소년 시설에서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 개발의 장인 '서구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오는 7일 개최한다.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모집, 전문교육을 통한 참여예산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정책제안서 작성을 거쳐 '활동으로 찾는 직업 작성', '청소년 금융 역량 강화 정책', '청소년 정서 지원 정책' 등 총 8건의 정책이 이번 정책토론회에 제안으로 올라 있다.

토론회는 서구청청소년수련관 공

연장에서 진행되며 현장에는 제안서를 작성한 대표 청소년 16명,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참가하는 청소년 79명이 이재현 서구청장과 함께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시점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청소년들의 의견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청소년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중남/기자



부평구, 반려동물 온라인 교양강좌 선착순 모집

부평구는 2일 '부평구 반려동물 온라인 교양강좌'에 참여할 부평구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강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구가 추진하는 반려동물교실 사업 중 하나로 오는 24일부터 인천시 수의사회 동물행동의학회 소속 강사가 총 4차례 온라인 줌을 통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반려견 인구조형 시대에 맞춰 반려인이 꼭 알아야 할 지식 전달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상호관계 및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배워보는 주제로 구성됐다.

반려인을 포함해 관심 있는 부평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인 줌으로 진행된다. 주간에 참여가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 보다 심층적인 강의를 들 수 있

도록 준비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부평구청 홈페이지 팝업존에서 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강좌별로 선착순 30명씩만 참여할 수 있다.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삶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FAIR TRADE
공정무역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은평구 연신내 20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우수상 수상

전국 기초단체 226곳 대상으로
서울시 대표로 최종심사에 올라

은평구는 지난 29일 은평구 연신내의 놀러와 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의 '20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우수사례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노력과 성공사례를 발굴·포상·홍보하고자 추진된 이번 공모 사업에서 은평구 연신내는 전국 기초단체 226곳을 대상으로 광역단체별 우수사례를 우선 선정, 서울시 대표로 최종 심사에 올라 17개의 후보 중 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은평구 연신내 상점가의 놀러와 프로젝트는 지난 9월 확정된 연신내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한 시설 인프라 구축, 차없는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연빛 거리 사업추진에 따른 새로운 골목상권 조성, 특색있는 점포들과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한 젊은 감각의



홍보, 지역주민·리더들과 함께 하는 상생프로젝트 진행 등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노력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연신내 놀러와 프로젝트의 수상은 구민들께서

해주신 결과로 먼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연신내 상점가가 서울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계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보내 온 응원의 메시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계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전담된 초등학생들의 '덕분에 챌린지' 응원 메시지와 지원물품이 감동을 주고 있다.

인천 서구 가원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정성들여 준비한 간식과 손편지를 보냈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그림과 감동적인 메시지는 선별진료소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8반 이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영상을 봤는데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요. 편지를 보냈어요. 저도 마스크를 꼭 쓰고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항상 코로나 있나 없나 확인하느라 많이 힘드니까 응원할게요. 코로나 거의 끝나가게 저희를 살려 주어서 감사한다. 힘내세요. 항상 지켜보고 고생하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으니 감사한다. 그리고 확진자 어르신도 어린이도 치료하느라 고생 하는 거 알고 있으니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가원초등학교 이다.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힘드시죠?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방호복이 불편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죠? 파이팅 그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 보건소 선생님들 덕분에 코로



나 확진자가 많이 줄은 것 같다. 우리들이 보내준 간식을 먹고 힘내세요. 정말 정말 감사한다. 안녕히 계세요." 계양구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선별진료소 관계자

는 '지역사회의 많은 응원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2020 온라인 성동구 스마트포용복지 박람회' 개최

성동구,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복지의 대응방안을 찾는 온라인 박람회 개최

서울 성동구가 오는 4일 오후 2시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복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스마트포용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구민들에게 성동구의 스마트 복지정책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사회복지에 융합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했다.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성동구의 민간, 공공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복지사업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송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복지테크놀로지'라는 주제강연 및 종합토론을 하는 포럼으로 구성했다. 구는 '스마트포용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구정 전반에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효사랑 주치의사업'에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물인터넷 단말기를 활용한 '독거어르신 모니터링', 휴대폰 수·발신 기록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함께해요 안부확인 서비스'도 스

2020 성동구 온라인 스마트포용복지 박람회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0.11.04.(수) 오후 14:00 ~ 16:00

▶ YouTube 생중계

주제 4차 산업혁명과 복지 테크놀로지
장봉근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한성 교수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주제 박선미 과장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과장)
박정선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경수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주제 유튜버 라이브 스트리밍
지역주민 및 기관홍보사

주제 온라인 유튜브 '성동구청' 검색
https://www.youtube.com/channel/UC7p5m1n0b0a21g1h0gDg

참여자 사전신청 (온라인, 11. 12. ~ 11. 30.)

주최 성동구 | 주관 성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문의 ☎ 2286-6044 (행복서비스국)

마트 기술을 활용한 성동의 대표적 복지사업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포용도시의 정책 방향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

업혁명의 기술을 도시에 구현해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 기술에 포용이 더해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서구 정보통신기술분야 '청년 취업 특강' 실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 강서구는 정보통신기술분야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협약기업과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취업 특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약화로 기업의 신규 공개채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자 마련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최신 취업 정보는 물론 취업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모집대상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20명으로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1월 6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11월 11일부터 3일간 채용동향, 입사서류 작성, 면접 준비 등의 특강을 들을 수 있다. 특강은 구직자가 취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입사서류를 직접 작성해보고 모의면접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강 종료 후에도 연말까지 1:1 맞춤형 클리닉을 진행해 실제 취업 과정을 도와주며 기업에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시설도 무료로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서울시와 강서구청이 지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청년 취업특강 & 1:1 맞춤형 취업클리닉

모집대상 / 정원: 취업 준비하는 2030 청년 / 20명

접수기간: 2020년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일시	주제	내용	비고
11.11 (수)	채용동향	• 2020년 청년채용 동향 • 채용동향 분석을 통한 구직활동방법 • 다양한 구직전략 수립하기	집체교육 (20H)
11.12 (목)	입사서류 작성	• 역량기반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 강렬시제 분석을 통한 자소서 작성하기 • 가독성 높은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1:1 클리닉 추가지원
11.13 (금)	면접 대비	• 유형별 면접전략과 면접이미지 메이킹 • 면접 질문격양 연습 • 모의면접 실시 및 피드백	

참가 특징: 1. 참여비 전액 무료, 2. 연말까지 1:1 맞춤형 클리닉 진행, 3. 대한상공회의소 협약기업 취업지원

참여신청: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 (www.kccisc.net) 접수 문의: 02-311-1000HR (혁신사업팀)

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협약기업에 취업을 연계해주는 등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정보통신기술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성황리 폐막 온오프라인 참여 속 대단원의 막내려



열띤 논의 끝 안동선언문 통해 공감, 다양성 등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문화 다양성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포럼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개막식 참석으로 포럼의 격을 높였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조강연으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토픽 상위권에 올라 국제적 포럼으로써 위상과 완성도를 입증했다. 포럼 개최 형태가 기존의 현장참가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참가자의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사전등록 방법과 온라인 생중계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질서 있게 참석하는 장면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인문가치 참여세션과 인문가치 실천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명도 높은 연사들이 출연해 참가자들과 깊은 공감대를 만들어냈고 이 공감의 온도도 힘입어 현장 참가자들은 추위와 우천 등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

켰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학술세션에서는 문화 다양성시대에 추구해야 할 많은 가치의 실현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들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삶 가까이에서 점진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행동들을 통해 이 사회에 다양성 존중과 공감의 씨앗을 함께 뿌려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포럼의 학술세션에는 미래의 인문가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인문학자의 발굴과 양성을 위해 논문공모세션이 신설됐다. 이 세션에는 기성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총 6개의 우수 논문

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정신문화재단 이희범 이사장은 폐회사를 통해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에 화답해 온 많은 참가자와 내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야의 포럼의 불편함 속에서도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어낸 모든 역할참가자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생산된 모든 가치들을 계승 발전시켜 차기 포럼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할 것이라 밝혀 모두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어진 안동선언문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타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꼬집고 코로나19가 드러낸 오늘날의 사회 문제들이 오히려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화 다양성이 갖는 사회적 가치가 강력한 시대적 요구임을 선언했다. 폐막 특별강연에서는 김명자 제7대 환경부 장관이 현재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비롯해 기후, 자원, 환경, 생태계 등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인간이라는 개체의 생존에 유익하면서도 지구의 전체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발전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을 통한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해 강연을 펼치며 의의성 있는 주제로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원호기자

별천지 영양, 야간경관조명으로 미래를 밝히다

영양군은 지역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신선함을 더해 주기 위해 읍내 주요도로 가로등에 특화된 별천지 야간경관조명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경관조명 사업은 민선 7기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지난 3월 샘플설치를 통해 주민들에서 사전 검증을 받았으며 기존의 반딧불이, 고추 캐릭터와 함께 특색 있는 야간 불거리를 제공해 영양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아시아 최초 국제 밤하늘보호공원 별천지 영양”을 홍보해 관광객 증대는 물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착공한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도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어 군 전체 4,500여명이 LED등으로 교체되면 시골 어르신들이 다니는 어둡고 좁은 골목도 이제는 밝아져 농산물 도난 방지를 예방하고 야간보행에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 주민 만족도와 의견 청취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읍내 뿐 만 아니라 면지역까지 확대 추진해 군 전체가 안전하고 밝고 환한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에듀힐링

경북교육청, 하반기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북교육청은 지난 24일과 오는 31일 유·초·중등 교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원 치유 프로그램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심리적 소진 : 다른 사람과 오랜 기간 집중해서 관계를 맺는 작업에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압력으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로상태를 예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겪었거나 업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으로 힐링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에듀힐링’, 환경을 지키는 운동법인 ‘플로깅’이다. 걷는 즐거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프로그램을 통한 의미 있는 경험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규모 인원으로 일정을 최소화하고 거리유지를 하면서 걷도록 했다.

음식 섭취도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이용하고 각자 쓰레기를 퇴거해가도록 보조 가방을 제공한다. 지난 24일 1차 교원 치유프로그램은 푸른 동해 바다의 내음을 느끼는 ‘영덕 블루로드 걷기’를 했다. 도보 여행을 위해 조성된 해안길 전체 코스 중 ‘목은 사색의 길’로 불리는 C코스 일부 구간을 탐방했다. 오는 31일 2차는 역사와 문화를 느끼는 ‘문경새재 걷기’를 한다. 백두대간 마루를 넘는 고개인 문경새재 제

송인용기자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정

사용기준 규정, 고품질 농산물의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도

사천시가 상품 브랜드 가치가 중요시 되는 농산물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와 고품질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농산물 통합상표인 ‘별그리고’가 2002년 개발, 정착되어 사용됐지만 사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의 고유가치를 알리기에는 다소 아쉬웠다는 외부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공우주산업 및 해양관광과 연계한 특화된 농산물 통합상표 개발을 위해 용역에 착수하고 농협과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등을 대상으로 네이밍 설문제를 실시, 시청직원과 농업한마당축제 내방객의 선호도조사 결과를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새로운 농산물 통합상표 ‘마시뜨라’를 출원했다. 새로 등록된 통합상표는 해양관광과 더불어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도시가 되기 위한 사천시의 노력을 담아 전투기 앞부분과 상행의 꼬리모양을 활용, 친근하고 순수하고 맛있는 이미지를 웃는모

양의 일러스트로 담아냈다. 시 농산물유통담당자는 “마케팅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마시뜨라’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국적인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호기자

경주시, 코로나19 극복 천년도읍 ‘맨발’ 건강걷기 대회 개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힐링 하러 오세요

경주시보건소는 다음달 7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까지 청성대 광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 3km 코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천년도읍 ‘맨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많이 줄어든 시민들에게 맨발 걷기로 발바닥을 자극함으로써 면역력 증강과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며 맨발로 걸으며 천년신라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울어진 힐링의 시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버스킹 공연 개최로 ‘코로나 블루’ 속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한반식기자

걷기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 아래 진행된다. 더불어, 부대행사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차매 예방·모자보건·정신건강 증진 등 건강체험 한마당을 운영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통일교육 앱 개발 온라인 컨설팅

경북교육청은 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인 ‘스마트 통일교육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통일교육 앱’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앱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다룬다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통일교육 앱을 개발 중인 도내 초등학교 5개팀을 대상으로 중간 점검과 온라인 컨설팅을 했다. 이번 컨설팅은 내년 3월, 앱 출시를 앞두고 우수 팀 발굴과 개발 자료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전문가 2명이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개발팀이 컨설턴트에게 메일로 자료를 보내면, 앱 실행 과정 오류와 내용을 점검하고 ZOOM을 활용해 온라인 컨설팅을 했다. 특히 울릉 천부초등학교 정용수 교사가 속한 ‘아리랑’팀은 학습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플립러닝이 가능하게 고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매일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화, 동영상, 텍스트 자료를 클릭 한 번으로 받아볼



수 있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친구들과 선생님께 보낼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했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우수한 앱이 개발돼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이 구축되길 바라며 학생들의 평화감수성을 길러주는 자료를 개발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가을하늘, ‘익사이팅’ 하게 즐기세요”

김해가야테마파크 더블익스트림 2+1 이벤트

김해문화재단 김해가야테마파크가 가을을 맞아 체험시설 ‘익사이팅 사이클·타워’를 대상으로 ‘더블익스트림 2+1 이벤트’를 실시한다.

11월 15일까지 익사이팅 사이클 혹은 타워 체험티켓 2매를 구매하면 답으로 1매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체험객들은 3인 이용 시 33% 할인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사이팅 사이클’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22m 높이의 고공 자전거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김해평야와 낙동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익사이팅 타워’는 72가지 익스트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 마치 클라이밍을 즐기듯 다양한 코스들을 완수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두 시설 모두 신장 140cm 이상



100kg 이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한편 가야테마파크는 ‘익사이팅 사이클·타워’ 이외에도 상설공연 ‘페인터즈 가야왕국’, 주말 야외공연, 코스모스 정원, 가야왕궁 전시관 등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시설, 먹거리 등을 갖추고 있다. 김해문화재단 가야테마파크 관계자는 “가을 여행시즌

을 맞아 인기 체험시설을 많은 분들이 실속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익사이팅 사이클을 통해 광활한 가을하늘을 직접 느끼고 익사이팅 타워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함께 만들어 갈 외국인 시민을 찾습니다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시민자문단’ 모집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앞서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개발과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시민자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시민자문단’은 부산시의 국제관광도시 사업추진에 직접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하고 단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한편 부산 관광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에 거주하며 부산 관광에 관심 있는 외국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국가는 제한 없으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구사 가능자만 선발하고 관광 분야 종사자,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자, 한국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 시민은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 관광포털 비짓부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 활동 기간은 2년이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시민자문단 모집!

지원대상: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누구나!!
접수일정: 11.2(월) ~ 11.23(월) ▶ 서류 접수 기간!
모집인원: 10명 내외 (중국어권 3, 일본2, 동남아 3, 구미주 2)

활동인내

- 국제관광도시 사업추진 참여, 참신한 아이디어 및 사업제안 기회!
- 단위사업별 추진기관/부서 요청 시 자문역할 수행
- 부산관광 홍보, 사업 추진사항 모니터링 등

* 회의 참석시 수당지급, 팸투어/시 주최 주요 행사 참석기회 제공, 연말 활동 우수자 시상상 수여

발하며 11월 말에 발표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연 2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단위 사업 추진 기관에서 요청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연 1회 팸투어와 부산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이벤트에 참여할 기회도 얻는다.

또한, 활동 우수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부산시장을 수여할 계획이라

고 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이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요자들의 정책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외국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경남도립극단 창단작품 연극 ‘토지 I’ 뜨거운 호평 속 마무리



내년도 추가 순회 공연 검토, 연작인 ‘토지 II’ 예정

경남도립극단 창단작품 연극 ‘토지 I’이 창단공연과 도내 순회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10월 9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23일 통영, 31일 창원 순회공연까지 준비한 객석 모두 만석이었다. 특히 창원 공연은 다섯 시간 만에 매진을 기록하며 경남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

다. 극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좌석으로 많은 분들에게 연극 ‘토지 I’ 관람의 기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미처 표를 예약하지 못한 도민들의 재공연 문의가 극단 측에 계속되고 있어 내년 연극 ‘토지 I’의 추가 순회공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동, 통영, 진주 등 경남을 배경으로 한 대하소설 토지를 원작으로 한 경남도립극단의 창단공연 연극 ‘토지 I’은 웅장한 규모와 지루할 틈이 없는 짜임새 있는 연출로 180분

동안 관객의 눈을 사로잡아 평단과 도민의 호평을 받았다.

연극 ‘토지 I’을 연출한 박장렬 예술감독은 “코로나로 두 번의 연기 끝에 창단공연을 무대에 올리게 되어 출연진과 제작진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그대로 드러나 오히려 더 감동적인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창단공연에 보내주신 열띤 응원을 거듭 삼아 도립극단의 위상에 걸맞은 멋진 작품들로 다시 도민 여러분을 만나 뵙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송인용기자

창원시,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

창원시민을 향한 창원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고백 ‘적극행정’

창원시는 ‘2020 창원시 적극행정 확산 주간’을 맞아 2일 개최된 정례조례회에서 ‘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식’과 함께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은 시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게시판을 통한 시민추천이나 부서장 추천 등의 방식으로 발굴된 과제를 전문가를 포함한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올해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로 시상했으며 최종 선발된 공무원은 1그룹 도시재생과 박세권 수산과 최임식 경제살리기과 환경국 2그룹 의창구 환경미화과 이혜경 의창구 환경미화과 박수연 마산합포구 월영동 박석범 신성구 반송동 심윤석 등 모두 7명이다.

또한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이 직원대표로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서를 낭독하고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적극행정 실천다짐 서명판에 서



명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적극행정 추진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급변하는 사회분위기와 시대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

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맛 좋고 빛깔 좋은 영양고추와 영양고추로 만든 빛깔찬 고추기름

검색 사이트에서 만나다

청정영양 원리인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트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한옥마을 정원콘서트, 감동과 추억 선사

시,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옥체험업소 등 13곳에서 총32회
추진한 한옥정원콘서트 성료



전주한옥마을 내 전통한옥에서 펼쳐진 '한옥정원콘서트'가 여행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며 막을 내렸다.전주시는 지난 8월부터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업소 등 13곳에서 총 32회에 걸쳐 추진한 한옥정원콘서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한옥정원콘서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옥마을 거리 공연 등이 불가능해지자 여행객들에게 전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공연이다. 이 콘서트는 시민과 여행객 등 30명 이내의 관객들이 한옥마당 가장자리 뒷마루에 자유롭게 걸터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공연은 문화포럼 나니레, 이희정밴드, 이상옥밴드 등 실력과 공연팁과 함께 해금 등 국악기와 민요가 어우러지는 퓨전 국악을 중심으로 펼쳐졌다.시는 한옥정원콘서트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공연콘텐츠로 여행객과 공연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여행객은 "한옥마을 여행 중 우연히 한옥정원콘서트를 만나게 됐는데 예상치 못한 감동과 좋은 추억을 선물로 받게 된 것 같다"며 "꽃이 잘 가꿔지고 장독대 등이 어우러진 한옥 마당에서 품격 있는 공연을 보며 전주한옥마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승일기자

'고창에서 #영화 #보리'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 성료

코로나-19속에서 피어난 힐링영화제,
3일간의 대장정 그 막을 내리



'고창에서 #영화 #보리'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지난 1일 그 성대한 막을 내렸다.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고창농촌영화제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열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 이들을 위한 가을밤 힐링영화제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그린카펫 입장식에선 영화제 초청 게스트들과 농촌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나란히 그린카펫 위를 걸으며 농촌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또 드라이브 시네마는 그간 맘 놓고 극장 외출을 하지 못했던 많은 가족, 연인, 친구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며 전 좌석 매진이 되는 대기록을 이뤘다.무비토크-힐링시네마에선 영화 '나는 보리' 김진유 감독과 봉만대 감독이 재치 넘치는 입담과 교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집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했다.폐막식에선 높을고창 영화학교 학생들이 만들어낸 메이드 인 고창 작품 2편을 폐막작으로 상영했고 농촌 3부 영화제 수상작들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생명문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한발 한발 내딛는 지금의 영화제가 앞으로 30회, 100회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우리나라 대표 농촌영화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폐막인사를 전했다.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장 진기영은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가 비록 코로나19속에서 조촐하게 진행됐지만, 위기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이번 고창농촌영화제를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김현태기자

"중국서 선보이는 전북 홍보종합세트"

전북도 중국사무소, 제2회
한중투자무역박람회 전북관 운영



전라북도 중국사무소가 전북의 다양한 매력 알리기에 나섰다. 중국사무소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장쑤성 연청에서 열리는 제2회 한중투자무역박람회에 전북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관은 태권도·한지·한복체험 등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가장 한국적인 모습부터, 새만금으로 대표되는 최첨단 미래 이미지까지 전통과 미래가 함께 숨 쉬는 전북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아시아의 강호 전북현대축구단의 사인볼 전시 및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아시아 축구 중심 전라북도'의 역동성도 함께 표현했다. 중국사무소는 주 부스와 포도존, 한지 체험존 등 총 세 곳의 홍보공간을 마련해 한복 및 태권도복 체험, 태권도격파, 포도존 사진찍기, 한지로 된 전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지인형과 한복향낭, 목재전등, 남원 옷질깎, 전주비빔밥 시계 등 한국적인 느낌의 전통공예품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특히 전라북도 중국사무소 SNS계정을 팔로우한 후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의 지속적인 홍보를 가능하게 해, 향후 전라북도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새만금과 함께 한중산업단지 지정된 연청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개최되는 행사로 장하성 주중국대사가 주관했고 특히 장 대사는

김승일기자

2020 온라인 군산짬뽕페스티벌 열려

11.7 ~ 11.22,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

비대면으로 2주동안 온라인축제로 짬뽕페스티벌이 열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동령길 일원에 위치한 짬뽕특화거리에서 '2020 군산 짬뽕페스티벌'이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온라인 축제로 열린다고 밝혔다.당초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해 개최 예정이었던 짬뽕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이 모이는 공연, 체험, 마켓 등 행사를 대신해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치러진다.비대면 축제의 아쉬움을 달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짬뽕특화거리에는 흥등과 네온사인으로 거리를 빛내며 짬뽕을 주제로 한 다양한 포토존을 구성해 볼거리를 제공한다.축제 기간동안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에서는 짬뽕UCC 공모전 100인의 짬뽕요리사 군산갈래챌린지 짬뽕먹방의 달인 거리 속 숨겨진 나의 한끼 인생샷 인생짬뽕 군산짬뽕거리 도장깨기 군산짬뽕 쿨러링 북 등 다채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온라인에서 참여한 프로그램들은 향후 심사와 추첨을 통해 상금과 군산사랑상품권 등이 지급 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위생행정과로도 문의할 수 있다.김 위생행정과장은 "축제 처해에 온라인방식으로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축제 기간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최하은기자

거창군,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의 정을순 할머니 시집 출간

한글과 함께 낯설게 다가온 세상을 시집 '배운 할머니'에 담아

어든 살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에서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정을순 할머니는 올해 한글과 함께 낯설게 다가온 세상을 '배운 할머니'란 제목의 첫 시집에 담아 출간했다.

할머니는 한글을 깨우치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꾸준히 작품을 내 2018년 전국 우수상, 2019년 전국 최우수상, 2020년 경남 도지사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19년 작품 '숨바꼭질'은 할머니가 '글을 깨우치고 나니 일상의 모든 것엔 글자가 숨어있음을 알게 됐다'는 배움의 기쁨을 표현한 시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대국민투표에서 최다득표를 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시집의 제목인 시 '배운 할머니'는 한글을 읽지 못해서 다른 버스를 탈까 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못 갔던 할머니의 경험에 대해 이젠 '배운 할머니'라서 '딱 보고 탄다'며 즐겁하



송인용/기자

고 당당하게 표현했다. 시집 '배운 할머니'는 이처럼 못 배우고 가난한 삶을 살았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이 땅의 많은 할머니,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이야기다. 이번 시집은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죽은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다는 의지와 2019년에 '숨바꼭질' 작품에 대국민투표에서 응원해줬던 많은 분들의 힘이 시를 쓰고 모으게 했고 2020년 출판콘텐츠진흥원에서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돼 세상에 나오게 됐다. 거창군은 2015년부터 학력인정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아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경남도내 최초로 중학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초·중·고등학교 5개 교실과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1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예총합천지회 이점용 지회장, '경남예술인상' 영예

한국예총합천지회 합천지회 이점용 지회장이 영예의 제30회 경상남도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점용 지회장은 역대 경남예술인상에서 직함 이수희 선생에 이어 합천에선 두 번째 수상자로 선정돼 합천지역 예술인들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점용 지회장은 향토 기업용문전력 대표를 운영하면서 대구 계명대학교 무역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했다. 고향에서 향토기업인 ㈜용문전력을 설립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전기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어둠 속에서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환원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경영철학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송인용/기자

역사회 문화예술 향상에 선구자가 되고 있다.

이회 협임 제25회 경상남도 사진대전 대상과 제18회 대한민국 정수 사진대전 대상을 수상하고 이번에 경남예술인상까지 수상한 것. 이점용 지회장은 "이번 예술인상 수상은 합천지역의 모든 예술가들의 힘"이라며 "보다 발전하는 합천사회의 문화예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동·청소년의 꿈을 위해 5억원 기부

비대면 마라톤 행사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는 통 큰 나눔 실천

부산시는 어제 오후 5시 부산시청에서 '제6회 기브앤 레이스 버추얼 런 부산' 대회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성황리에 종료된 비대면 마라톤 행사의 대회 참가비로 조성된 이번 기부금 총 5억원이며 이는 부산지역 5개 복지법인에 나누어져 아동·청소년의 의료비와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행사 주최 측인 김지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회공헌위원회 의장, 구자중 부산MBC 사장,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전달식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솔선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한편 '제6회 기브앤 레이스 버추얼 런 부산' 대회는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비대면 활동이 중시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 맞춤형 스포츠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부산시는 어제 오후 5시 부산시청에서 '제6회 기브앤 레이스 버추얼 런 부산' 대회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성황리에 종료된 비대면 마라톤 행사의 대회 참가비로 조성된 이번 기부금 총 5억원이며 이는 부산지역 5개 복지법인에 나누어져 아동·청소년의 의료비와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행사 주최 측인 김지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회공헌위원회 의장, 구자중 부산MBC 사장,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전달식에서 "코로나19

문정우 금산군수, 소중·사선문화상 모범공직자 선정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11월 1일 전북 사선문화제의 소중·사선문화상 모범공직자 부문에 수상했다.

문 군수는 민선7기 취임 이후 원스톱 친환경시스템 구축,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 정상화,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입주 마무리,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소송 승소 등 난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약사업의 경우 복지 안정성, 정주기반, 문화생태, 생활편의, 일자리 창출, 우량기업 유치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10개 분야 76개 사업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이행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실 사선대 관광지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사선문화제는 매년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한 인사들에게 소중·사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고정화/기자

파주시 제27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 3개 부문 최다 수상 쾌거

파주시가 제27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영예의 경기도 농어민 대상을 수상한 3명의 농업인은 군내면 백연리에서 고품질 친환경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과수부부 명인복씨, 조리를 뇌조리에서 관엽식물 재배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화훼부부 이태호씨, 군내면 읍내리에서 파주개 성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특용작물부

문 이형만씨다.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경기도 농어민 대상은 고품질·과수·화훼 등 총 15개 부문에서 경영능력·유통개선·재배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경기도 농업발전 기여도가 매우 큰 우수한 농어민을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오후 1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영농자금

우선지원과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영농교육 강화 위촉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김홍규 파주시 농축산과장은 "2020년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 장려에 이어 경기도 농어민대상 3개 부문에 선정돼 한층 농업 중심지로서 파주농업의 능력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역세권 초품아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방문객들의 호평 속에 12일(목) 1순위 청약접수

- 1호선 신천역세권, 단지 앞 동신초, 4베이 4룸 설계에 관심 집중
- 12일(목) 1순위 청약접수, 19일(목) 당첨자 발표

지난 10월 30일(금) 문을 연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견본주택에 오픈 후 찾았던 방문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검증된 동대구 프리미엄을 이어갈 브랜드 대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은 사전예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사전예약은 시작과 동시에 많은 신청자가 몰렸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예비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신천역 및 KTX·SRT 동대구역의 멀티역세권과 동신초 초품아의 프리미엄 입지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견본주택을 찾았던 수요자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구성과 입주자의 생활편의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특화, 첨단시스템 등 제품력에 상당히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동신초 등 학교와 바로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40대 젊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풀사이즈 농구코트를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보기 힘든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만의 장점으로,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음성인식 월패드 하이데시앙과 안면인식으로 공동안전을 출입하면 엘리베이터까지 자동 호출되는 안면인식로버, 주차위치 인식시스템과 만·공차확인시스템, 각 동별 무인택배시스템, 미세먼지 CO2 자동 감지 환기시스템, 전세대 LED 등 타사 제품 대비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선보여 수요자들의 놀라움을 이끌어냈다. 모형도와 세대내부를 직접 확인한 내방객들은 "다양한 실내 커뮤니티 시설이 외부활동이 힘든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꼭 맞는 것 같았고, 맞통풍이 가능한 중소형 4베이에 알파룸, 펜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평면설계에 맘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고 데시앙만의 세련된 인테리어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최근 동대구 권역에서 보기 힘든 4베이 4룸 혁신설계를 선보이는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은

전 세대 일반분양으로 여유로운 동간거리와 쾌적한 단지환경,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여 인근 단지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지상에 차가없는 아파트로, 일부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차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차량까지 지하로 다닐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삼성물산 조경사업팀(구.에버랜드)의 조경 노하우를 적용하여 단차없는 평지형 단지설계와 함께 진정한 공원형 아파트를 실현했다.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은 지하2층~지상29층 8개동 860세대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 74, 84㎡ 중소형으로 구성됐고, 타입별로 보편 전용 59㎡ 191가구, 74㎡A 186가구, 74㎡B 55가구, 84㎡A 312가구, 84㎡B 116가구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11월(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목) 1순위, 13일(금)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19일(목), 정당계약은 서류심사와 부적격자 확인을 거쳐 12월 2일(수)~4일(금) 3일간 실시한다.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견본주택은 동구 신암동 219-4번지에 성황리 공개중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박유석/대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장현국 의장, 국회의원에 '도주요사업예산확보 협력' 요청

2일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감염병 위기 극복 및 교통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한 경기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경기도 사업에 대한 정부안 반영을 유지하고 미반영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확보를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때"며 "경기

도 역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년도 예산은 도로·철도·복지·환경 등 경기도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교통인프라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인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과 정책에 관심을 가져 줘 감사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목표에 맞게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강화군 '2021년 어촌뉴딜300' 선정 총력전

2019년 뉴딜사업 대상지 후보항, 전국 최고 공정률

강화군은 낙후된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촌뉴딜사업은 전국 300개의 어촌 어항에 약 3조 원을 투입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 개발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역점 사업이다.

올해까지 210개소를 선정했고 2021년도 사업은 11월 말까지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12월 중 사업 대상지 60개소를 추가로 선정한다.

군은 어촌뉴딜300사업에 지난 2019년 후보항이 선정돼 사업비 87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0년에는 황산도항과 장후항이 선정되면서 165

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2021년도에 하리항, 초지항, 장곶항, 아차도항을 공모 신청하고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어촌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어촌, 관광, 디자인, 도시계획 등 수준 높은 계획을 수립해 서면평가에 대비하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들로 현장 평가에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의 항포구는 한강하구의 풍부한 어족 자원에도 접경지역에 속해 매우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다"며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 강화를 어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봉기자

허인환 동구청장,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점검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송림오거리 편의시설 설치 및 현대상가-동인천역방향 우회전 교통체증 구간 시찰 등 송림골 사업현장을 살폈다.

허 구청장은 동명초등학교부터 서림초등학교까지 약 500m 구간의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사업현장을 돌아보며 노면 불량·노후 도로 재포장, 습터 정비, 어린이 보행안전 교통시설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학생들의 보행에 불편한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송림오거리 편의시설 설치 현장

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로부터 송림오거리와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편의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와 타당성 검토를 보고받고 시공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문했다. 끝으로 송림오거리에서 교통정체가 극심한 현대상가-동인천역 우회전 방향을 점검하고 신호대기 차선을 기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해 대기차량을 분산시키고 차량소통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자주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세종 유망기업 2370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기록

10월 27~30일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수출계약 10만 달러 성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TJB대전방송 공개홀에서 개최한 '2020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에서 총 2,370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매칭데이는 충청권 유망 수출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종시·충남도·대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TJB대전방송이 주관했다.

시는 수출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제품 샘플을 발송하고 전문 통역을 배치했으며 지속적인 온라인 수출 마케팅 추진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세종지역 중소기업 6곳을 비롯해 충청지역 중소기업 46곳이 참여해 화상으로 베

트남 유망 바이어들을 만났다.

세종 지역 중소기업 6곳은 이번 매칭데이에서 상담 60건, 약 2,370만 달러 실적을 올렸고 수출계약 가능액 1,061만 달러, 현장계약 10만 달러 성과를 냈다. 특히 세종시에 소재한 화장품 생산업체인 7기업은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베트남 L사와 양해각서를 맺고 총 1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7기업은 베트남 L사와 1,642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을 진행해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비즈니스 매칭데이로 관내 수출 유망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은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1년에도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수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국가대표 명품 의성 한지마을 육성지원사업 추진



의성마을 전국 최고 품질로 승부

한지마을의 최대 생산지인 의성군이 의성마을의 품질 안전성과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고 한지마을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쟁비 부담 경감을 위해 6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한지마을 파종기에 5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제조제 사용 경감과 겨울철 동해방지를 위한 마을 비닐을 지원하고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와 미생물 증식, 병해충 저항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자재도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생육에 적합한 환

경을 조성, 안전하고 차별화된 마을을 생산해 의성마을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한다. 한편 의성군마을생산자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이용하는 관행농법에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안전먹거리를 생산하도록 전환, 의성마을 살리기 앞장서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기상이변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시민에게 면역력에 좋은 고품질의 마을을 제공하고 의성마을 농가에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